

연구논문

영화 <죽구왕>에 드러난 의미 없는 행위의 정치성과 상상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권현정*

<국문초록>

<죽구왕>은 2010년대에 개봉한 한국 영화중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지배 질서에 맞서 대항할 방법으로 의미 없는 행위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영화에서 제시한 새 연대의 모습은 지금 이곳에서 실현 가능한 연대가 아닌 상상적 연대이다. 이는 새 연대가 신자유주의라는 체제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것임에도 정작 그 체제와 중첩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그 질서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새 연대는 연대의 시발점에서부터 젠더 위계를 나누는 등 배제를 기본 질서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대는 어떤 변화를 위한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달성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이다. 이를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그것이 달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구별 짓기도, 차별도, 위계도 나누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배제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때 새 연대의 가능성은 먼 미래 혹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주제어: <죽구왕>, 신자유주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상상적 연대, 젠더 위계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lee11569@hanmail.net)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며

199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한 이후 신자유주의¹⁾ 체제를 기본으로 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급속도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산은 경제위기 등 각종 문제를 유발시켰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적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김진호, 2016: 347). 이 같은 동향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갖는 한계점을 인식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 중인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개봉한 우문기 감독의 영화 〈죽구왕〉은 만연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폭력과 폐해를 가시화하고 그에 대항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대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대학생들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겪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폭력적 양상을 드러내며 범람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감독은 생활 체육 종목인 죽구를 중심에 놓고 지배 질서의 폭력에 맞서는 방법과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행위가 갖는 정치성과 그가 제시하는 새 연대의 모습은 충분히 문제적 논점을 제공하기에 〈죽구왕〉을 기본 텍스트로 놓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죽구왕〉이 독립영화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독립영화의 자장 안에 〈죽구왕〉이 놓여 있다는 것은 작품 서사의 성격은 물론 이 글의 분석과도 긴밀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

1)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는 논자들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논의를 위해서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를 한정적인 의미에서나마 명명할 필요가 있다. 정진희(2012: 34)는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접근법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특정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로 협소하게 보기보다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들과 국내의 차원 모두를 포괄한 세계 자본주의의 최근 국면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며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정진희의 논의를 참고하여 “세계 자본주의의 최근 국면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의 독립영화는 1980년대 초 영화청년들이 영화의 “교육, 사회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논의”(김미현, 2006: 289)를 시작하면서부터 태동한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문화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아 영화 서클을 결성하다가 이후 “1982년 사회비판적인 최초의 영화단체인 서울영화집단을 결성”(김미현, 2006: 290)한다. 이들은 “혼재되어 있던 단편영화, 소형영화, 독립영화, 실험영화 등의 개념을 ‘작은 영화’로 통일하고 현실개혁으로서 영화의 의미를 확고히”(김미현, 2006: 291)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독립영화는 운동에서 예술로의 전환을 꾀한다. 이는 독립영화 또한 상업영화처럼 대중화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두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뜻한다. 그러나 대중화를 목표로 둔다고 해서 독립영화에 영화운동의 색채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영화운동의 자장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대중화를 지향하는 작품 또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죽구왕> 또한 독립영화의 현 흐름에 따라 영화운동의 색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한 작품으로 바라보았다. 이 맥락에 따르면 <죽구왕>이 독립영화라는 장르적 특징을 갖는 만큼 작품의 서사 전개 또한 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죽구왕>의 서사는 현실의 부조리를 짚어내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때 영화운동을 위시한 독립영화의 태생적 특성은 <죽구왕>이 전달하고자 하는 반(反)사회적인 대안적 메시지의 색채를 더욱 짙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지배 질서의 한 단면을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죽구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만석·김필남(2015)의 국내 학술 논문 한 편이 있다. 이 연구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행위에 주목한 것으로 그들의 행위가 열정적 공동체를 조직하고 기성제도에 파열음을 내는 등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살피고 있다. 또한 논자들은 <죽

구왕)이 청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인만큼 이 작품은 미래의 청년 영화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는 주인공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 저항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그 행위가 갖는 정치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방향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주인공의 행위가 갖는 정치성을 단순히 시대에 맞서는 저항으로만 귀결되는 듯이 논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새 연대의 가능성까지는 살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이 영화는 체제에 맞서 저항하는 청년들을 핵심 서사로 그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 분명히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 지점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가 남기고 있는 젠더 문제야말로 지배 질서의 폭력을 드러내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이 족구를 통해 벌이는 의미 없는 행위가 갖는 정치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2장). 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상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젠더적 관점을 주된 렌즈로 활용할 것이다.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찌서 영화에서 제시하는 연대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상적 연대에 불과한 것으로 귀결되는지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3장).

2. 의미 없는 행위로 중심과 거리두기

〈족구왕〉(우문기, 2013)²⁾은 말년 병장인 주인공 홍만섭(안재홍)이 부대 안에서 족구를 하다가 제대 통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대 후 복학한

2) 이후 이 글에서 인용하게 될 영화 〈족구왕〉 속 대사들은 직접인용(“ ”)으로만 표기하도록 한다.

그는 족구를 하려고 학교 안의 족구장을 찾는다. 그러나 입대 전에는 있었던 족구장은 이미 없어진 뒤였고, 족구를 하는 사람 또한 찾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만섭은 친구 창호(강봉성)와 함께 족구장 다시 만들기에 애를 쓴다. 이후 몇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학내에는 과 대항 족구 경기가 열릴 만큼 족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끝내 족구장이 다시 생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족구왕>은 족구로 시작해 족구로 끝나는 영화인 셈이다.³⁾

주인공 만섭은 재미있는 인물이다. 그는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복학생으로 재학 중이며 학점은 2.1, 토익 시험은 처분 적도 없고, 외형은 여자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며, 심지어 여자친구 또한 사귀어 본 적이 없다.⁴⁾ 한마디로 만섭은 이 시대가 원하는 소위 스펙 좋은 인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는 행위는 주목을 요한다. 복학한 그는 남들처럼 좋은 스펙을 위해 애를 쓰기는커녕 오히려 족구라는 쓸데없는 행위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상가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201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기존의 세대가 누렸던 사회적 기회들을 얻는데 큰 한계를 갖는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승리한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3) 영화에서 운동 종목으로 족구를 선택한 것은 족구가 가진 성격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족구는 축구, 야구 등처럼 제도권 안에 속한 정식 스포츠가 아니다. 족구는 기껏해야 생활 체육이나 포함되는 운동일 뿐이다. 그래서 족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그 사람이 뚱뚱하든, 말랐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스펙이 좋든 나쁘든, 족구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 이는 영화 속에서 이 생활 체육인 족구 경기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와도 관련된다. 작중에서 이루어지는 족구 경기는 결코 승자와 패자를 가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미를 갖는 족구가 남성 중심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문제적인 지점이다. 이는 족구를 통한 주인공들의 정치적 행위와 연대에 치명타를 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4) 이름: 홍만섭, 나이: 24세, 신분: 식품영양학과 복학생, 학점: 2.1, 토익 점수: 받아본 적 없음, 스타일: 여자가 싫어하는 스타일, 여자 친구: 있어본 적 없음(네이버 영화, 2013).

다. 다시 말해 그들은 좋은 일자리, 고소득 직종, 자신만의 주택, 기타 좋은 재화 또한 냉혹한 경쟁 없이는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송호근 외, 2010: 24-25). 즉 오늘날의 청년들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한 ‘세속적 자본주의’에서 생존방식을 모색”(송호근 외, 2010: 32)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영화 속 대학생들은 모두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 그들에게 학교는 이미 취업기관이 된지 오래이며 그들 중 일부는 전공과 무관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만섭이 족구에 매달리는 모습은 영화 속 다른 인물들에게 비아냥 거리가 된다. 그의 룸메이트인 같은 과 선배 형국(박호산)은 그에게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라고 충고한다. 그들이 보기에 만섭이 하는 족구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의 흐름”에 맞지 않는 “쓸모없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김만석·김필남, 2015: 44).

그러나 만섭은 그들의 비아냥과 충고를 무시한다. 그는 대학 총장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참석해 다른 학우들이 취업이 더 잘 되는 학교로 만들어 달라고 항의할 때에 혼자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다. 그런데 학교는 그 작은 건의조차 무시한다. 정확히는 총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지만 이사장의 친동생은 학교의 소중한 예산을 그런 것 따위에 쓸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기 때문이다. 직급만 총장일 뿐, 돈 앞에서는 아무런 권력이 없는 총장은 이사장의 친동생에게 휘둘리는 처지라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에도 “시장의 확대와 경제의 논리를 언제나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유호근, 2009: 126)하는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가 들어차 버렸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불과 40여 년 전 “70년대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이란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보루”(이혜림, 2005: 20)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은 “민주적 가치”는커녕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더욱 미시적으로 변모한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며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학교 측에 족구장을 건의했다가 퇴짜 맞은 이후 만섭은 창호와 함께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 서명을 받는 다소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다. 만섭의 이 같은 행동을 처음에는 다들 이해하지 못한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비만이 었다가 다시마만 먹고 살을 뺐다는 창호와 고도비만 때문에 의사에게 다이어트 할 것을 진단받아 족구를 하려하는 미래(황미영)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섭은 대학 퀸인 안나(황승언)와 같은 수업을 통해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남자친구 강민(정우식)과도 알게 된다. 곧 셋의 삼각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는 족구가 놓인다.

강민은 만섭과 족구대결을 한다. 그들이 벌인 경기는 구경꾼들의 핸드폰에 촬영되어 온라인으로 퍼진다. 이때부터 만섭과 족구는 학교를 뜨겁게 달구는 화젯거리가 된다. 이후 학교에는 서서히 족구 열풍이 분다. 이 장면을 영화는 학교 내 모든 건물들과 시설들을(도서관, 학교 식당, 총장실, 거리, 화장실, 분수대 등) 족구공 하나가 통통 튀기며 가로지르는 것으로 연출한다. 언제나 치열한 경쟁으로 경직되고 엄숙하기만 했던 학교의 분위기는 통통 튀는 족구공처럼 서서히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족구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스펙 쌓기에 여념 없던 학생들이 점차 빈 우유팩을 공삼아 차는 등 족구라는 의미 없는 행위에 동조한다는 점이다. 이후 학교 안은 족구로 대변되는 무의미한 행위들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이는 강민이란 인물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강민은 전직 축구선수로 부상 때문에 운동을 그만둔 인물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모든 판단의 근거”(유호근, 2009: 130)가 된다. 따라서 “국가와 조직, 개인들은 (...)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능력을 인정”받고 “존재적 의미”(유호근, 2009: 130)를 갖는다. 이 같은 흐름은 축

구와 같은 “근대 스포츠” 또한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과 교착”되었음을 보여주는 맥락이기도 하다(김만석·김필남, 2015: 39).

이를 상기할 때 부상을 입은 강민을 두고 축구팀이 어떤 처사를 보였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축구팀은 냉혹한 신자유주의 질서에 따라 부상당한 강민을 이끌어 함께 나아가기 보다는 재기할 수 없는 강민은 버리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경제성”있는 선수들만 꾸려 팀을 이끌었을 것이다. 강민은 부상이라는 하자로 “경제성”을 갖지 못해 경쟁 체제에서 낙오된 것이다. 여기서 낙오란 강민이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 그의 태도는 시종일관 무기력한 것으로 비춰진다. 안나를 좋아하면서도 만섭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나자 이내 그를 포기해버리는 등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섭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게 된 이 족구라는 운동은 열패한 인물 강민도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족구라는 운동에 서만큼은 약육강식과 같은 경쟁도 없고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 누구도 낙오, 좌절, 실패 등을 겪지 않는 것이다.

족구의 이 같은 특성은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가 논의한 놀이의 특성⁵⁾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일찍이 카이와는 놀이를 두고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놀이는 휴식과 즐거움을 주며, 놀이하는 자가 놀이 자체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생활의 진지함과 반대된다. 또한 놀이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 무생산성 때문에 놀이는 때로 비효율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5) 카이와(1994, 25-34)의 놀이 이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놀이는 자유로운 활동으로 놀이하는 자는 놀이에 참가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둘째, 놀이는 분리된 활동이다. 셋째, 놀이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게임의 전개나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넷째, 놀이는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어떠한 재화도 부도 그리고 새로운 요소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다섯째, 놀이는 규칙이 있는 활동이다. 여섯째, 놀이는 허구적인 활동이다.

도 한다. 하지만 놀이는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과 분리될 수 있다(김윤중·강기수, 2010: 96). 놀이의 무생산성, 즉 경제성을 갖지 않는 놀이의 특성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틈새를 만들어낸다.

카이와의 놀이 이론에 따르면 영화 속 청년들이 족구를 하는 행위도 하나의 놀이다. 영화에서 족구는 족구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며,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놀이이기에 족구를 하는 자가 족구 그 자체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래서 족구라는 놀이를 하는 동안 등장인물들은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즉 스펙, 취업 등의 현실생활에 속박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족구는 일반적인 생산 활동과 완벽하게 분리된다. 이 때문에 족구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시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 족구는 현 세계의 지배 질서와는 아예 그 성격이 다른 새로운 노선인 것이다. 족구의 이같은 특성은 만섭을 비롯한 청년들이 왜 하필이면 하잘 것 없는 족구에 열광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김만석·김필남이 지적한 바처럼 족구는 일종의 “저항의 기제”(2015: 44)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놀이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공동체 의식”(김윤중, 2012: 139)의 함양을 꼽을 수 있는데 영화 속 족구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 놓인다. 청년들은 족구를 하는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집결되어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이후 학교 내에 족구장이 생기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는 그들이 공유한 “공동체 의식”이 단지 의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한 족구를 통해 발현된 “공동체 의식”은 이후 3장에서 살펴 볼 새 연대의 가능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교 전체가 족구 열풍으로 어수선해지자 학교 측은 총장에게 족구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니 저지하길 권하지만 실상 족구를 금지시킬 학칙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에서 보자면 족

구와 같은 운동은 비아냥 거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즉 족구로 대변되는 이 의미 없는 행위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공략할 수 없는 막강한 빈틈이 된다.

한스 요아스(Hans Joas)는 행위에 대해 “창조성이라는 개념보다 (...) 인간행위의 차원을 더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개념은 없다”(요아스, 2002: 15)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행위의 창조성은 “법·제도·상징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 규칙과 규범”(『한겨레』, 2009.6.1)이 “행위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기존의 행위습성은 붕괴되고, 행위자들은 새로운 행위 습성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재건하기 위해 분투”(『한겨레』, 2009.6.1)하는 과정에서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로 요약되는 이 시대 앞에서 영화 속 대학생들은 그에 맞서기 위해 행위로 분투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나온 행위의 창조성이 바로 이 의미 없는 행위인 셈이다(『한겨레』, 2009.6.1).⁶⁾

이 의미 없는 행위는 자칫 어떤 목적도 수단도 될 수 없는 쓸모없는 행위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에서 다음 행위로 (...) 넘어가는”(요아스, 2002: 259)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목적-수단의 도식 아래에서 행위이론이 출발하는 것은 행위를 바라보는 자명한 출발점이 될 수 없으며, 이 도식 아래에서는 어떤 행위도 이해될 수 없다(요아스, 2002: 259).

따라서 만섭의 행위를 목적이나 수단이라는 도식을 가정한 채 바라본다면 그의 행위는 결코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섭의 행위는 오히려 그 이분법의 도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배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는 목적도 수단도 아닌 이 의미 없는 행위를

6) 요아스는 인간 행위의 창조성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회개혁일 수도 있고, 혁명이나 파시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창조성은 동시에 무거운 실천적 책임 의식을 요구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통해 신자유주의 질서에 잠식된 학교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스펙 쌓기와 거리를 둔다. 나아가 학교 밖의 사회가 원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삶 또한 몸소 거부한다. 이를 통해 점점 중심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⁷⁾

3. 상상적 연대의 배제 논리와 한계

파울 페르하에허(Paul Verhaeghe)는 우리 모두가 신자유주의 질서에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행동도 알게 모르게 물이 들어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체제를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데에 일조하는 생활방식을 가졌다고 논의한 바 있다(페르하에허, 2015: 250-251). 아울러 그는 이 체제를 바꾸어 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생활방식을 바꾸어야한다고 역설했다(251). 그의 논의에 따르자면 영화 속 대학생들 대부분은 실상 신자유주의 질서에 물이 들어 있고 그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확장하는 생활방식을 고수한 채이다. 그들은 학교를 취업기관으로만 생각하고, 총장에게 취업이 더 잘 되는 학교를 만들라고 항의하는 등 누구보다도 신자유주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섭을 통해 죽구 열풍이 일면서 그들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비록 그들의 생활방식 자체가 통제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만섭의 죽구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7) 의미 없는 행위를 통해 중심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이 절의 논의는 자칫 그해 무엇 이든 의미만 없는 행위라면 모두 정치성을 갖는 것이고 동시에 중심과 거리를 두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말하는 의미 없는 행위가 갖는 정치성, 그리고 중심과 거리두기라는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전체 조건을 갖는다. 의미 없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시대의 폭력, 억압, 모순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주체가 자신이 하는 행위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때에 그의 행동은 정치성을 갖는다.

방식에 동조하던 이들의 행위를 짧게나마 멈춰 세우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정지는 곧 후퇴를 의미한다”(페르하에허, 2015: 71). 이에 따르면 영화 속 인물들이 족구를 통해 일순간이나마 체제 앞에 멈춰 섰다는 것은 그들이 “그 체제의 일부”(페르하에허, 2015: 251)로 기능하며 머물던 것을 버리고 그 체제를 넘어선 너머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과도 같다.

따라서 영화에서는 이들의 족구가 단순히 체제에 맞서는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은 족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대를 꿈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단서는 등장인물들이 족구를 통해 울고, 웃고, 사랑과 우정까지 나누는 모습을 다소 극적이게 부각시켜 그려내고 있는 장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연대를 지금 이곳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영화가 보여주는 연대는 다분히 상상적 연대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인공 만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만섭은 군대에 있는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등록금 미납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학기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만섭은 학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안나와 함께 듣는 수업의 과제를 반드시 마치고 싶어 한

8) 족구를 통해 강민-안나, 창호-미래, 형국-고운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만섭은 비록 좋아했던 안나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창호, 미래, 형국 등 족구로 맺어진 인연들과 돈독한 우정을 나눈다. 강민 또한 축구선수를 그만 둔 이후 내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만 행동하다가 족구를 통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고 서먹하고 어색했던 선배들과도 친밀해진다. 이처럼 영화는 단순히 족구를 저항의 장치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삭막했던 학교 내 개개인간의 인간적 유대를 회복하고 발견하는 계기로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적 유대의 회복 및 발견은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든다.

9) 이 글에서 사용하는 상상적 연대란 지금 이곳에서 실현 가능한 연대를 뜻하기 보다는 오히려 먼 미래로 유예되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연대 혹은 문자 그대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연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지만 교수에게 양해를 구해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는 영화 속 영어 대사를 가져와서 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때 만섭과 안나는 영화 <백 투 더 퓨처>를 선택한다. 그리고 만섭은 영화 속에는 없는 대사로 안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때 그는 자신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한다.¹⁰⁾ 그는 자신을 50년 후 미래에서 2013년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삶은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지루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50년 전인 스물네 살 때에 그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 고백 한 번 못해보고 공무원 준비에나 파묻혀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2013년으로 돌아온 만섭은 “먼저 족구를 매일매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사랑 고백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그런 만섭의 뒤편으로 원래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한 장면이 재생되어야 할 스크린에 2013년도 만섭의 모습이 재생된다. 이것은 <죽구왕>의 가장 마지막 장면과 연결지을 수 있다. 영화 말미에서 만섭과 안나가 영어 과제를 했던 강의실 스크린이 재등장하는데 이때 스크린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온다. 그 옆에 놓인 비디오 기기에서는 이

10) 영화 속 만섭의 영어 대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인 2063년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천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지루한 인생을 살았다면서 천국에 가서도 즐기지 못할 거라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2013년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스물네 살로 말이죠. 아씨... 저는 군대를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십 대로 돌아오니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때 연애 한번 못해보고 밤낮 없이 맨날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파묻혀 살았거든요. 2013년으로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먼저, 족구를 매일매일 하고 싶었습니다. 또 뭘 할까 생각하던 중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겁쟁이처럼 그녀에게 고백 한번 못해보고 멀리서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병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꼭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 다 재생된 비디오테이프가 나오고 그 제목은 〈족구왕〉이다.

이 같은 연출은 〈족구왕〉의 서사가 만섭의 말처럼 과거로 온 미래인의 판타지적 서사였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¹¹⁾ 설령 만섭을 과거로 돌아온 미래인으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돈을 내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신세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떠밀려 의도했던 아니든 학교에서는 적을 두지 못하는 것이다.

영화는 처음 족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주인공을 실은 미래인이라거나 혹은 학교에 소속되지 못한 외부인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것은 만섭의 행위가 일으켰던 파장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미래로 유예하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 이 때문에 족구 경기를 통해 보여준 새 연대의 가능성 또한 다분히 상상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즉 그들의 연대는 상상적 연대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단숨에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는 것은 아직 무리다. 그렇기에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족구왕〉에서 새로운 연대를 상상적 연대로만 제시하며 끝을 맺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젠더적 관점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족구왕〉이 보여준 새 연대의 모습은 처음부터 젠더 위계를 나누는 등 배제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제의 논리는 그들의 연대가 왜 지금 여기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상적 연대로 전락되는 것

11) 이 외에도 영화는 작중 말미에서 차를 타고 달리는 만섭의 모습을 현실 세계의 사람이 아닌 듯 다소 모호하게 그린다. 카메라는 만섭이 탄 차가 떨어져 접이 될 때까지 잡는다. 그리고 그의 차는 어느 순간 밝은 빛이 점멸하며 사라진다. 마치 만섭이 2063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미래인인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영화는 만섭을 2063년에서 온 미래인으로 보아도 무방한 듯이 제시한다.

인지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우선 영화의 주요 설정인 족구부터 살펴보자. 영화의 첫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족구는 군대처럼 남성들이 모인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운동 중 하나다. 그렇다면 영화는 왜 하고많은 종목 중에 하필이면 족구를 선택한 것일까? 이 글의 각주 3번에서 추측한 바 있듯 족구가 제도권 밖에 놓인 운동인 탓이다. 그러나 영화 서사 전반을 살펴보면 족구가 단지 제도권 밖의 운동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이 영화가 보여주는, 족구라는 놀이로 저항하는 행위 자체가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족구가 남성 위주의 놀이라는 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족구가 학교 내에서 붐을 이루었을 때 그에 반응하고 호응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학생이었다. 만석이 총장과의 대면에서 족구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을 때에도 총장은 예전에는 족구를 참 많이 했었다고 추억을 곱씹으며 족구장 건설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제시되는 족구는 남성의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이자 남성들끼리 우정을 다지기에 좋은 운동인 셈이다. 이 때문에 영화에서 족구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예외 인물 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다.

미래는 여성임에도 족구 경기에 참여하는 유일한 여성 인물이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영화 설정이 주목을 요한다. 작중 미래의 모습은 여성이라기보다는 남성에 더 가깝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오늘날의 남성들이 좋아할만한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마 한 가운데에 큰 점이 있는 등 호감 가는 외모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뚱뚱하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다이어트 할 것을 진단받은 미래는 살을 빼기 위해 족구를 시작한다. 다른 남성들이 놀이 개념으로 족구를 시작한 것에 비해 미래만 확연히 다른 이유에서다. 그에게 다이어트는 사회가 내린 숙제이자 오늘날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

는 통과 의례와 같다.

따라서 미래에게 족구는 현실 생활과 분리되며 무생산성을 가지는 놀이가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족구란 현실의 연장선이며 체중감량이라는 결과물을 낳기 위한 수단이다. 덧붙여 외형마저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린 오늘날을 상기한다면 미래가 다이어트를 하려는 것은 체중감량을 통해 자신의 “경제성”을 증명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는 남성들과 똑같이 족구라는 운동에 참여하지만 혼자서만 그 목적이 다르다.

이 외에도 영화는 미래가 족구를 통해 창호와 연애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이 과정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한다. 술에 잔뜩 취한 창호를 만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미래가 번쩍 업어 들고 걷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엄마와의 영상 통화에서 자신의 등에 업힌 창호를 보여주며 오늘은 그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다든지, 그런 미래에게 엄마는 “그 아 안 다치게 조심하고 집에 꼭 보내래이. 가네 엄마도 걱정한다 아이가”라는 말을 하며 미래가 아닌 창호를 걱정한다든지 등의 모습이 그렇다. 영화 속에서 미래는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일 뿐 인물 설정부터 창호를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들 그 누구에게서도 여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¹²⁾

이는 또 다른 여성 인물 안나와 대조하면 더욱 노골적으로 비교된다. 안나는 대학 쿤으로 못 남성들의 관심과 애정을 독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미래와 안나를 대하는 남성들의 태도는 확연히 차이난다. 안나는 남성 인물들에게 이상적인 여성의 전형이자 매력적인 이성으로 그려지지만,

12) 영화에서 미래를 이성으로 바라보는 인물은 창호뿐이다. 그런데 창호가 작중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창호 또한 비만이었다가 다시마만 먹고 살을 뺀 인물이다. 그는 감량 이후에도 체중 유지를 위해 밥은 일절 먹지 않고 오직 다시마만 먹는다. 창호는 고도비만인 미래와 유일하게 비슷한 점이 있는 인물인 셈이다. 게다가 그는 술에 취했을 때 미래의 등에 업혀 귀가하는 등 영화 속 다른 남성 인물들처럼 일반적인 남성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영화에서는 이 같은 인물인 창호만이 미래를 이성으로 바라보고 이후 두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래는 남성과 같은 성을 가진 동성처럼 취급되거나 혹은 무성으로 취급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 중심인 족구 경기에 참여하려면 안나와 같은 여성성은 포기하고 미래처럼 여성이지만 남성 같은 존재, 혹은 무성 같은 존재로 전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영화상에서 안나를 비롯한 다른 일반 여성들은 족구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곁에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남성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간식을 챙기는 등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을 한다. 남성(혹은 무성)으로 취급받는 미래를 제외하고는 족구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심판도, 중계자도 모두 남성이다.

즉 영화 속에서 족구는 남성이 중심이자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운동인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철저히 주변인으로 전략된다. 이와 같은 전개는 중심과 주변을 구분 짓고 위계를 나누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그것을 넘어서고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무의식중에 투영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문제적이다. 그들은 지배 질서에서 벗어나려 행위하고 연대를 상상하지만 여전히 지배 질서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영화의 이 같은 전개는 오늘날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도 연관된다. 요즘 한국의 청년은 88만원 세대,¹³⁾ N포 세대¹⁴⁾ 등으로 지칭된다. 이 지칭들이 갖는 공통적인 함의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삶의 질, 안정과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 등으로 요약될 것이다. 일찍이 사용되었던 이태백¹⁵⁾이라는 말을 넘어서 최근에는 헬조선,¹⁶⁾ 수저

13) 88만원 세대란 우석훈·박권일(2007)의 저서 『88만원 세대』에서 사용된 말이다. 이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취업 자체도 어려워졌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월평균 급여가 88만원이라는 당시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14) N포 세대란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연애, 집, 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 포기하는 것이 N개인 오늘날의 청년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오마이뉴스』, 2016.4.28).

15) 이태백이란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16) 헬조선이란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지옥을 뜻하는 영어 단어 Hell을 붙인 합성어로 한국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 등을 지옥에 비유한 말이다.

계급론¹⁷⁾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갈수록 인간답게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한국 사회를 조롱하듯 빗댄 신조어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불운한 청년’의 삶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불운한 청년’이란 과연 누구인가? 헬조선에서 수저 계급론에 따라 이미 정해진 인생을 사는 88만원 세대, N포 세대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우석훈·박권일은 자신들의 저서 『88만원 세대』에서 세대 내 경쟁에서 가장 불리한 집단은 고졸 이하 집단과 여성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193). 이에 관해 저자들은 “고졸이면서 여성이라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또는 고학력실업이라는 호들갑에 가려, 거의 사회적인 이슈조차 되지 못한 불행한 집단”(193-194)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들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불운한 청년’에 속하는 집단은 결국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집단은 ‘불운한 청년’보다 더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명인간”(우석훈·박권일, 2007: 194) 취급을 받는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할 때 영화에서 운동 종목으로 남성 중심적인 족구를 선택한 것과 나아가 족구를 통해 저항하는 행위가 어째서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겪는 ‘불운한 청년’은 남성이지 결코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숨겨진 함정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에는 합리성, 경제성 등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의 기저에는 젠더적 위계가 늘 함께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17) 수저 계급론이란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계급이 결정된다는 뜻으로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적 계급이 바뀌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이 맥락에 따르면 어쩌서 영화에서 주인공 만섭을 제대한 복학생이라거나 혹은 미래인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또한 이해할 수 있다. 이 설정에는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 속에서 고통 받는 ‘불운한 청년’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자 어른(혹은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에게서 극복, 타개할 방법을 얻고 지혜와 교훈을 배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 전제에 따르면 만섭으로 표상되는 아버지 세대로부터 가부장적 질서를 대물림 받은 아들 세대는 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이 상상하는 연대 또한 당연하게도 남성 중심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앞서 이 글의 각주 7번에서 의미 없는 행위가 정치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지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영화는 그 주체를 남성으로 설정한다. 그렇기에 만섭 등을 비롯한 남성 인물의 행위는 저항이자 정치성을 갖는 생산적인 행위이지만, 미래 등을 비롯한 여성 인물의 행위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소비, 방관, 동조하는 비생산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남성의 행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여성의 행위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¹⁸⁾

한길석은 산업자본주의의 성장 이후 조성된 사회적 연대를 설명하면서 연대가 약화된 이유 중 하나로 “체제 밖으로 배제된 이들”을 살피지 않았

18) 이 맥락에서 작중 예외 인물 미래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래는 다른 여성 인물과 달리 축구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를 위해 미래라는 인물은 여성성을 지우고 남성 혹은 무성인 존재로 설정된다. 그러나 그렇게 참여한 축구 경기에서 미래 혼자만 이마로 공을 받아친다. 다른 남성 인물들이 축구라는 놀이 규칙에 맞춰 능숙하게 발을 사용할 때, 미래는 고도비만 때문에 발로 하는 축구에 어려움을 겪어 발 대신 이마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출된 것이다. 이 같은 장면은 남성은 축구로 표상되는 의미 없는 행위, 즉 정치적 행위에 숙달된 존재, 최적화된 존재로 간주하지만, 여성은 (심지어 남성 혹은 무성인 존재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적인 장면이다.

음을 끊은 바 있다(한길석, 2015: 148-150). 즉 어떤 체제에 맞서 싸울 때에는 최소한 그 체제 때문에 고통 받는 구성원들은 모두 감싸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연대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제에 맞서기만 하면 된다는 이유로 연대를 꾸릴 때에 다수의 구성원이 소수의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위계를 구분 짓는다면 그 연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끝내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연대에 대한 이 같은 맥락은 <족구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족구를 통해 만석 무리 등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은 분명 의미 있는 정치적 행위였다. 그러나 그 행위의 구성 조건에서 여성을 보조적·부차적인 역할만 하는 존재로 치부하거나 혹은 남성이 주축이 되는 행위를 구경하고 응원하기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실천하는 연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연대란 어떤 변화를 위한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의식은 “연대 그 자체가 달성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강수택, 2006: 43)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연대 안에서 구성원들 스스로가 만드는 배제와 차별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무언가가 바뀌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적 도식에 빠질 위험이 커질 것이다.

이 지점에서 2장에서부터 언급했던 “공동체 의식”과 그 의식을 함께 공유한 공동체가 과연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불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존 셸(John Searle)은 “타자를 협동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은 곧 타자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earle, 1990; 이현재, 2005: 36에서 재인용)고 논의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은 족구 경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다른 남성 타자들처럼 “협동적 파트너”로 인정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 직접 경기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 인물인 미래조차도 다른 남성 타자들이 느낀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없었다. 그들과 달리 미래에게 족구는 놀

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화에서 족구를 통해 형성하는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이란 결국 여성을 주변부로 전락시키는 등 적나라한 젠더 위계에 따른 남성들만의 전유물에 불과하다. 위계와 배제로 대표되는 지배 질서의 폭력에 대항하는 그들의 연대는 모순적이게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누구보다 충실히 따르며 또 다른 젠더 위계와 배제를 낳고 있었다. 그래서 <족구왕> 속 연대는 더욱 상상적 연대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보여준 연대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조디 딘(Jodi Dean)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연대를 정서적(관습적) 연대와 반성적 연대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정서적(관습적) 연대는 공통의 전통 및 가치를 기본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연대에서는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반성적 연대는 자유와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배제와 차별 없이 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딘은 반성적 연대가 더 지향해야 할 연대라고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반성적 연대의 기반은 정서적 관계나 가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적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의사소통적 공동체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차이에 대해 묻고 반응하고 논쟁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공동체이다(Dean, 1996; 이현재, 2005: 39-43에서 재인용).

딘이 제안한 반성적 연대는 <족구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대 안에서 구분 지어진 젠더 위계, 즉 배제 논리를 넘어설 대안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영화에서 족구로 형성된 공동체는 정서적(관습적) 연대에 가깝다. 그래서 놀이로 족구를 즐길 수 없는 처지이거나, 혹은 족구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 등은 주변부로 전락한다. 그러나 영화 속 남성 인물들은 족구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 인물

들에게 단 한 번도 의사소통적 공동체의 방식으로 소통한 적이 없다. 족구 경기에 관한 대화를 제외하면 영화 속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중 서로의 처지나 차이를 이해할 법한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진정한 연대라는 것은 어떠한 구별 짓기도, 차별도, 위계도 없는 순수한 공동체의 행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끊임없이 묻고, 반응하고 논쟁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새 연대의 가능성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4. 나가며

〈족구왕〉은 2010년대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지배 질서에 맞서 대항할 방법으로 의미 없는 행위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작품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된 오늘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장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제시한 새 연대의 모습은 지금 이곳에서 실현 가능한 연대가 아닌 상상적 연대이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새 연대를 구성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젠더라는 렌즈를 통해 보자면, 새 연대는 분명 신자유주의 질서에 맞서고자 결성된 것임에도 정작 지배 질서와 중첩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질서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영화에서 족구를 통해 꾸리는 연대의 구성 조건을 보면 남성, 여성을 중심-주변으로 나누는 등 젠더적 위계와 구분 짓기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대의 주축이 되는 것은 남성이고, 여성은 보조적이거나 부차적인 역할만 하는 주변인으로 전락한다.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조차 여전히 중심-주변을 나누고 젠더 위계를 구분 짓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배 질서를 넘어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에 여전히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체제에 중첩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무의식이 스며들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죽구왕>에서 보여주는 새 연대는 지금 여기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상적 연대로 귀결된다.

그러나 연대란 어떤 변화를 위한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니다. 연대는 그 자체가 달성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이다. 이를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그것이 달성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구별 짓기도, 차별도, 위계도 나누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배제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때 새 연대의 가능성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수택(2006), “사회적 연대 담론의 구조와 시민문화”, 『한국사회학』, 제40권 6호, 25-55쪽.
- 김만석·김필남(2015), “하이틴, 청년 영화와 행위의 가능성: 스펙, 개발 담론을 넘는 영화 <죽구왕>을 중심으로”, 『영화』, 제8권 1호, 31-51쪽.
- 김미현(2006), 『한국영화사: 개화기에서 개화기까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윤종(2012), “어린이 놀이의 교육인간학적 의의”,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강기수(2010), “Caillois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놀이의 교육적 기능”, 『교육사상연구』, 제24권 3호, 91-111쪽.
- 김진호(2016), 『근대 유럽의 역사: 종교개혁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송호근·강원택·김은경 외(2010), 『위기의 청년세대』, 파주: 나남.
- 요아스, 한스(2002), 『행위의 창조성』, 신진옥 옮김, 서울: 한울, Joas, H. (1996), *Die Kreativitaet des Handelns*, Frankfurt: Suhrkamp.
- 우석훈·박권일(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
- 유호근(20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아태연구』, 제16권 1호, 123-140쪽.
- 이현재(2005), “여성주의적 연대의 가능성: 조디 던의 “반성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5권, 33-54쪽.
- 이혜림(2005), “1970년대 청년문화 구성체의 역사적 형성 과정: 대중음악의 소비양상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제10호, 7-40쪽.
- 정진희(2012),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 카이와, 로제(1994), 『놀이와 인간』, 이상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Caillois,

- R.(1958), *Les Jeux et les hommes*, Paris: Librairie Gallimard.
- 페르하에허, 파울(2015),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신자유주의적 인격의 탄생』, 장혜경 옮김, 서울: 반비, Verhaeghe, P.(2014), *What About Me?*, London: Scribe Publications.
- 한길석(2015), “사회적 연대 비판”, 『시민인문학』, 제29권, 148-169쪽.
- Dean, J.(1996), *Solidarity of Str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arle, J. R.(1990), “Collective Intentions and Actions”, in *Intentions in Communication*, eds. P. 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01-416.

〈신문기사〉

- 『오마이뉴스』, 2016.4.28, “프리터족, 그리고 달관 세대와 N포 세대”.
- 『한겨레』, 2009.6.1, “창조적 분투로 역사의 진보에 개입하라”.

〈인터넷 자료〉

- 네이버 영화(2013), “히세 0% + 혈중 열정 농도 100% 슈퍼 복학생이 나타났다!”,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03797>
(검색일: 2016.10.31).

〈시청각 자료〉

- 우문기(2013), 〈족구왕〉, 광화문시네마.

(논문 투고일: 2016.10.31, 심사 확정일: 2016.12.05, 게재 확정일: 2016.12.15)

<Abstract>

**On Political Nature and the Possibility
of Imaginary Solidarity of Meaningless Acts
as Presented in the Movie *The King of Jokgu*:
Focusing on Gender Perspective**

Gwon, Hyeon-Jeong*

Among Korean movies released in the early 2010s, *The King of Jokgu* is significant for describing the possibility of a new solidarity, by presenting meaningless acts as a way of countering the dominant order of neoliberalism. However, the image of the new solidarity presented in the film is not one that can be realized here, but is rather an imaginary solidarity. This is because it was meant to confront neoliberalism, but was prevented from doing this by the existing patriarchal ideology which followed the neoliberal system without objection. Accordingly, new solidarity regulates its exclusion as a basic order, such as sharing the gender hierarchy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coalition. However, solidarity is not one of the various processes for change, but a unique value that must be achieved by itself. This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goal and there should not be any discrimination, or hierarchy in the process of achieving solidarity. When excluding exclusion itself, the possibility of the new solidarity is not limited to distant future or the imagination, but can be realized here in the present.

Key words: *The King of Jokgu*, neoliberalism, patriarchal ideology, imaginary solidarity, gender hierarch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